

성서 베끼기

네 복음서 성경 필사하기. 나에게는 자신이 있는 숙제였다. 오랜만에 많은 글씨를 쓴다는 것에 약간의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Fairfax, Virginia 에 있는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의 공동체 창설 30 주년 및 본당승격 20 주년 기념행사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신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였다. 사순절 동안 또 성서를 필사하는 동안 주님께 가까이 있게 하려는 신부님의 배려였다. 9 월 25 일의 기념행사중 하나인 성경필사 노트전시에 맞춰 네 복음서 필사를 끝내야 했다.

어쩌다 들려오는 잡음소리에 정신이 집중 안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성서 쓰는 동안에는 모든 잡념을 끊을 수 있었다. 글자 한 자 틀릴까봐 또 달라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는 이제 자신이 없어서 몇 번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써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보면서 읽으면서 쓰면서 하는 과정에 성서내용을 음미하고 이해하고 머리에 더 새겨지게 할 수 있었다. 성서 쓰다가 눈이 피로 해지면 돋보기안경을 벗어 놓고 눈가를 부비면서 휴식을 취하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옛 일들을 회상하기도 했다.

책 베끼는 일은 많이도 해보았다. 초등학교 시절때 선생님이 내준 교과서나 참고서 베껴오는 숙제가 무척 많았었다. 때로는 졸면서 책을 베끼기도 했다. 글자를 똑똑하고 알아보기 쉽게 예쁘게 쓴다는 말은 어려서 부터 많이 들어보았다. 의예과 시절에 군대간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동료 사병이 곁봉투의 글씨를 보고 여자친구한테서 왔다고 해서 내기를 해 점심을 얻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의과대학 2 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책자를 만들었다. 요즘 같으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자를 쓴 다음 복사를 하면 되지만 50 년전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고 듣도보도 못한 원시적인 방법 밖에 없었다. 투명한 종이에 초를 입힌 특수원지를 가리방(쇠판)에 대고 철펜으로 써야 했다. 너무 세게 눌러 쓰면 원지가 찢어져 낭패를 본다. 나중에 이렇게 쓴 원지 위에다 롤러에 잉크를 바른 다음 눌러 밀어서 프린트하기 때문에 글자를 꼭꼭 눌러 써야만 했다. 가리방 철펜이 눌러서 닿는 오른 손 셋째 손가락 마디가 빨갱게 통통 부어오르곤 했지만, 학생 수에 맞게 백 권의 강의책자를 만들어 질 때 마다 무척이나 흐뭇하고 보람이 있었다. 때로는 학생들 모임의 회보나 선배들의 박사논문을 책자로 몇십 권 씩 만들기도 했었다.

성서 베끼기는 이번이 나에게 두번 째였다. 첫 성경필사는 버지니아로 이주하기 전 뉴욕주 버팔로에서 했다. 버팔로에 한인 천주교 공동체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오신 상주 한인 신부님이 첫 사순시기인 1998 년 4 월에 네 복음서 중 가장 짧은 마르코 복음서를 필사하라고 숙제를 내 주었다. 이 일 저 일 때문에 신부님이 만들어 주신 계획표 보다 일 주일 늦게 시작하였다. 하루하루 베끼기로 주어진 분량이 있었지만 늦게 시작한 터라 퇴근 후 틈나는대로 쓰게 되었고 한가한 주말 아침에 열심히 써 내려갔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 주일이 지나면서 밀렸던 과제를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고 일 주일이 더 지나면서 조금씩 앞지르기 시작했다. 부활절 일 주일 전 성지 주일에는 마르코 복음의 마지막 글자 '아멘'을 쓸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공관 복음서가 아닌 요한 복음서도 계속해서

써 볼까 했으나 일 주일 동안에 끝낼 수가 없어 공책을 돌려받은 다음 시작하기로 했다. 부활절 자정미사 때 많은 교우들이 쓴 마르코 복음서 필사본을 봉헌할 때는 신부님과 신자들의 흐뭇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다.

공책을 돌려받자 곧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했다. 그해 6월 어느 날짜 평화신문에 한국의 춘천교구는 곧 다가올 2000년 대희년을 맞아 교구내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맛들어 쇄신되도록 하기 위해 '필사본 성서 한 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었다. 구약과 신약성서 전부를 다 쓴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약 성서만 전부 필사하는 것으로 이 운동에 참가하기로 했다. 마르코 복음과 요한 복음은 필사를 끝냈으므로 마태오 복음서부터 틈틈이 적어 내려갔다. 퇴근 후에 가끔 성서를 필사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주말에 많이 써 내려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니 여러권의 필사공책이 쌓여갔다. 드디어 그해 성탄절에는 요한 묵시록의 마지막 구절인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를 써서 긴 여정의 끝을 장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7권의 공책에 앞 뒤로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예쁘게 쓴 나의 신약 성서 필사본을 만들었다. 어느날 대모님이 와서 성서 필사본을 보고 노트 한 권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싶다고 하여 마지막 성서인 요한 묵시록의 필사본을 선물로 주었다. 그리하여 완성품을 위해 요한 묵시록을 다시 썼다.

첫 번째 성경필사 시작하기 두 달전인 1998년 2월에 예수님과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 버팔로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하던 곳, 자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던 회당,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기적을 보인 곳, 갈릴리아 호수,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하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바울로 사도의 선교 지역 등이 모든 장소와 기록들이 낯설지 않고 친밀하게 되었고 더우기 믿음을 더 가지게 되었다. 또 이러한 성지를 순례할 때 마다 해당되는 마태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을 읽어주고 보충 설명을 해준 본당 신부님의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 쏙쏙 새겨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특히 우리 성지순례를 맡아온 안내자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도 신부가 되지않고 신랑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내를 맡고 있어 더 많은 성서 지식과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타볼산을 바라보며 달리던 순례버스에서 이야기해 준 유모어는 잊을 수가 없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은 '고스톱'에 열중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고스톱'을 하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거절하자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에 놀라 예수님도 함께 '고스톱'을 하게 했으나 결국 제자들에게 돈을 다 잃고 하산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그 유모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필사하면서 성지순례 때의 일들이 떠올라 성서가 훨씬 재미있고 믿음이 더 생기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

책 베끼는 일에는 이력이 난 나지만 네 복음성경 필사는 조금 달랐다. 이번에는 성당에서 필사노트를 사서 썼으므로 모두가 걸모양은 같았고 노트 종이가 좋아서 편안하게 써내려 갈 수 있었다. 이 성서를 편안하게 필사하면서 몇천 년전 유대인들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성서를 힘들게 썼을 것을 생각하고 비교해 보기도 했다. 또 초기 신앙인들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 성서를 필사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진 배경 안에서 쓰여진 성서를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성서를 읽고, 성지순례 때를 생각하며, 또 성서를 베껴 쓰는 것은 글자 한 자, 한 구절을 음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므로 성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네 복음서 성경필사처럼 재미있고 쓰는 시간이 기다려진 적이 없었다. 쓰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고 마음에 안정과 평화가 와서 자꾸만 쓰고 싶어졌다. 더군다나 은퇴했기 때문에 처음 성서 필사할 때 처럼 시간에 쪼들리지 않고 여유있게 성서를 필사할 수 있었다. 요한 복음 20 장에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쓰여져 있다. 나도 이 성서를 필사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는 성서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또 어느 한 신부님이 “성서를 쓰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가장 가까이 두고 늘 새롭게 만나는 체험과 같은 것” 이라고 말씀하신 것 처럼 이 성서 필사본에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성 정하상 바오로성당의 공동체 창설 및 본당승격 기념행사의 하나인 성서필사노트 전시에 놓여 있었던 나의 네 복음성서 필사노트 두권과 20 년전에 전부 베낀 7 권의 신약성서 필사노트와 함께 버팔로교구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기념패인 ‘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Hand-writing New Testaments’가 나의 책장을 빛나게 하고 있어 매우 흐뭇하고 나의 중요한 가보로 장식하고 있다..